스웨덴에서의 논쟁적 입양 서사

– 토비아스 휴비네트, 다문화 센터, 스웨덴 스톡홀름

최근에 나는 스웨덴의 성인 국가간 입양인들이 인종 및 인종차별주의 이슈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스웨덴의 국제 입양 역사

스웨덴은 다른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에 앞서, 위탁이나 입양으로 외국 태생 아동들을 받아들인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30년대 말 제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스웨덴은 나치 지배하의 중앙 유럽으로부터 피난 온 650명의 유태인 난민 아동들을 위탁아동으로 받아들였고, 전쟁 동안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핀란드의 7만 아동들이 중립국가인 스웨덴의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 전쟁 말에는 강제수용소 아동들부터 나치의 아동들까지 더 많은 난민 아동들이 이 나라로 들어왔다. 결국, 전후 기간 동안 적어도 만 명 가량의 유태인, 핀란드인, 독일인 위탁 아동들이 스웨덴의 입양 가정에 영구적으로 머물기 위해 왔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웨덴은 국가간 입양 관행을 실제로 선도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최근 정의에 따른 국가간 입양이란 제 3 세계 국가의 비 백인 아동들의 입양을 의미하며, 한국 전쟁의 여파로 시작되었다는데, 여기서 스웨덴이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까지 스웨덴에 아동을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였다. 칠레, 브라질, 에콰도르, 과테말라, 콜롬비아와 같은 남미 국가나,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타이완, 베트남, 그리고 최근의 중국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같은 적은 범주의 동유럽 국가들까지가 오랜 시간 동안 스웨덴의 입양 통계에서 주요한 근원 국가로서 나타나고 있다. 1957년과 2007년 사이, 150개국 이상의 나라로부터 5만 명 가량의 아동들이 스웨덴에 입양되었다고 추정되며, 이것은 이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의 국가간 입양아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또한 자국 출신 인구와 비교해볼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임을 의미한다. 비록, 페로 제도(Faeroe Islands)나 미국의 미네소타주, 그리고 최근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이 비례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외국 아동들을 입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역사적 인구 통계학적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우수한 진보성향 국가, 인종차별반대와 다문화주의의 파라다이스로서 스웨덴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국가간 입양의 주요 지지자들은 그들 자신을 인종차별반대주의자, 반제국주의자로 보고, 1968년 새로운 사회운동의 활동가가 되었으며, 이 논리는 인종차별철폐와 제3세계 국가의 연대라는 좌익 진보주의 담론으로써 이념적으로 포장되었다. 따라서 국가간 입양은 국제적인 결속과 지

구적 양육 행동, 입양인들은 문화간 화해의 다리, 입양부모는 아동 구제자라고 표상되어, 국가간 입양은 결코 논쟁의 대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스웨덴이 서양의 식민정책이나 제국주의 실행과 그 역사 밖에 있었으며, 인종은현 스웨덴 사회에서 사용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주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연시 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성인 국가간 입양인들은 스웨덴의 공적 영역에서 회고록(memoir works)의 형태라는 거의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 내고, 입양인을 정치 논쟁이나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현대 스웨덴 사회에서의 성인 입양인이라는 위치에서 자신의 시각을 표현하는 독립적 주체로까지 바뀌었음을 처음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의 자기서사들이 스웨덴의 국가간 입양에 대한 이미지에 도전하고 있는가? 또한 국가간 입양과 인종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인 입양인들의 자기서술은 일상적 인종주의의 다른 많은 증거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 대중은 전반적으로 입양인들이 비입양 이민자들이 차별 받은 것 과는 달리 차별 받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회고록들의 출판 전에는 이 이야기들은 전혀 거론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많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 국가간 성인 입양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러한 자기 서술의 방법으로, 백인 엘리트 속에서 문제없었던 입양인들의 삶은 현대 스웨덴 사회와 문화가 인종차별주의와 식민주의적 생각에 젖어있다는 사실에 의해 중단되고 방해 받게 된다. 국가간 입양인들이 그들의 비 백인 외모를 제외하고는 백인 스웨덴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입양인들이 다르게 대우를 받을 때는 결국 인종만이 작용하는 변수라는 논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국가간 입양인의 평소 경험이 서양 사회에서의 인종차별주의 강도와 범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나의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종차별주의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의식적인 토론이나 맥락 없이 일반적으로 본문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있다. 그리고 입양인이 때때로 마치 그들이 무엇에 종속되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백인이 아닌 몸으로 살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러한 경험은 인종차별주의라 불리우지 않는다. 인종차별주의라 부르고 확인하기를 이렇게 명백히 꺼리는 것은 현대 스웨덴 사회가 인종과 인종차별주의 문제를 토론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리낌과 연계되어 있다. 입양인 자신들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인종적 역할을 확인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은, 스웨덴인 부모들과 유사한 태도의 반영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입양되지 않은 비 백인 이민자를 향한 태도에 있어서 입양인은 다른 백인 스웨덴인과 다르지 않다. 입양인 자신들이 이민자들을 향해 공공연하게 거리를 두는 것과 같은 많은 예들이 회고록에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 3세계 국가와 유색인종을 향한 극도의 적대적이고 외국인 혐오주의적인 표현과 용어를 사용한 예도 몇 가지 있다.

몇몇 입양인들에게 있어 비백인 신체에 관한 문제 중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적 이미지의 틀 안

에서 서구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에 따라 움직이고 이를 내재하려 함으로써 스스로를 근본주의적 정체성 프로젝트의 일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양인들은 전형적인 식민주의 담론을 따라 다수의 백인 인구에게 읽히고 이해 받기 쉽게 스스로를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편한 혹은 "불필요한" 백인이 아닌 자신의 신체를 특권을 얻을 수 있고 타인과 그들 자신에게 사회 문화적으로 용인되고 이해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나 가치 주체로 바꾼다. 그래서 아무리 입양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여러가지의 인종차별의 경험에 지배되고, 가족과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자라는 다른 비 백인 이민자들보다 사실은 더 많이 차별 받는다 할 지라도, 그들은 다른 유색인종과 결국 그들 자신들까지도 인종차별하며, 식민주의의 틀에 박힌 인습에 대항하기 보다는 그것을 재생산하고 보강하는 위험을 감당한다.

이번 연구 계획의 동기

이번 연구 계획은 최근 북유럽에서 시행된 양적 입양연구에서 동기를 얻은 것인데, 이러한 연구는 성인 국제입양인들이 교육수준, 노동시장성적, 결혼과 출산에 있어 양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높아지기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정신적 질환, 알코올 및 약품 오남용, 자살 사건이 다른 그룹에 비해 빈번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결과는 스웨덴 성인 국제입양인의 자살이 스웨덴 태생의 백인에 비해 5배에 이르는 것인데, 이는 국제적으로 북미와 호주의 원주민 자살률과 거의 동등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 결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인 국가간 입양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개념화 하는 것이다. 서구의 백인 엘리트 집단에서 성장하고, 성인으로 백인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다른 비 백인 소수민족이나 이주자들이 친가족과 민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것과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종간 이론의 전개를 통해 이 연구는 성인 국제입양인의 생애사를 통하여 빈번히 발견되는 이들의 신체적 불안과 육체적 소외감이라는 감정과 심한 정신적 손상과 폭력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성인 국제 입양아들이 그들이 태어난 제3세계에서의 입양 전 정신적 외상이나 친부모로부터의 유전적 결함 때문에 사회적이나 혹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지배적인 입양 전 해석 모델과 생물유전학적 해석 모델을 넘어서 통계적 입양 연구의 성과와 결과물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한국인

국가	국제입양아	한국 입양아	한국인 이민자
스웨덴	50,000	10,000	990
덴마크	20,000	9,000	240
노르웨이	15,000	6,000	285
미국			
미네소타	25,000	15,000	12,000

어느 서양 국가가 인종간 입양을 가장 많이 했느냐는 질문에는 적어도 45만에서 50만의 입양아란 절대적인 숫자로 미국이 1위가 되고, 스웨덴은 5만으로 2위에 이른다. 그러나, 자국민 인구와 연관하여 비례적으로 볼 때는 스웨덴이 가장 많이 입양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현재는 가장 높은 비율로 입양을 하고 있다. 덴마크 통계에 따르면 덴마크의 반 자치 구역인 페로스 제도가 현재 세계에서 비례적으로 가장 많이 입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또 다른 평가서에서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지방이 몇 년 전부터 서구의 입양을 선도하고 있다고 하며, 미주 내에서는 미네소타주가 가장 많이 입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저자 토비아스 휴비네트의 연락처는 이메일: is tobias.hubinette@mkc.botkyrka.se, 홈페이지: www.tobiashubinette.se이다.

(영한번역 : 김승미, 구선영)